

광주에 시립·구립 도서관 8곳 건립

서구 치평·유촌권-하남·산정권 2곳...수완·신창 권역 등 6곳

정부 권고 기준 32곳엔 아직 부족...시, 내년부터 연차적 확충

광주시 서구 치평·유촌권역과 하남·산정권역에 시립도서관 2곳, 수완·신창 권역 등에 구립도서관 6곳 등 모두 8곳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

광주시는 13일 공공도서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 전체 8개 권역을 선정한 '공공도서관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공공도서관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확충 권고기준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도서관 운영주체별로 ▲치평·유촌, 하남·산정 등 시립도서관 2개 권역 ▲수완·신창, 우산·월곡, 풍암, 행암·노대, 신안·임동, 신용·쌍암 등 구립도서관 6개 권역으로 구분, 제시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전문 용역 업체를 비롯한 총 9명의 각계 자문위원이 참여, 광주시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했다. 도서관별 인구밀

도를 고려한 기존 도서관별 봉사반경을 산출하고, 기존 도서관의 공공도서관 기능 수행 여부 등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 공간분석을 진행해 최종 공공도서관 필요 지역을 찾았다. 이번에 시립도서관 건립 지역으로 선정된 2곳은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시립도서관이 없는 지역이며 서구 치평·유촌 권역의 경우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방안 용역' 결과와 지역주민협의체 의견을 종합 반영했다.

광산구 하남·산정 권역은 주변에 문화복지시설이 없고, 하남동에 시립도서관 건립 규모의 부지(시유지)가 있어 건립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 최근 하남 3지구 조성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

됨에 따라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가 늘어나는 도서관 사각지대임을 고려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현재 이 지역 도서관 수가 정부의 권고 기준에 못 미쳐 추후 새로운 공공도서관 건립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확충 권고기준인 인구 4만5000명 당 1개관 목표를 위해서는 광주지역에는 32개관이 필요하지만 현재 25개관(기운영 23, 건립 중 2)뿐이다. 이에 광주시는 부족한 7개관을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산강 고대문화권,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오늘 국회도서관서 학술대회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14일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강당에서 '영산강 고대 문화자원 개발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대응전략' 학술대회를 연다.

정부 지역개발 공약에 포함된 영산강 고대 문화자원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임영진 전남대 교수는 영산강 고대 마한 문화권의 성격에 대해 기초강연을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과 미래비전', 박중환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영산강 마한유적의 잠재가치와 활용방안', 이민석 전남대 교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영산강 고대 문화권 반영'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성휘 전남도 의원,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문안식 동아시아 역사문화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구충근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의장은 13일 '영산강 고대문화권은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는 들어 있었으나 제4차 계획에서 빠졌다'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는 화순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함평군, 영암군, 담양군, 장성군 등 전남 8개 지자체로 구성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7년 추곡수매 현장 2017년 공공비축미곡 추곡수매가 진행된 13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 북광주농협 우치동지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들이 건조벼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소아당뇨 어린이, 화장실서 몰래 인슐린 주사 맞지 마세요

정부, 학교 보건실 등 투약 공간 마련·응급약품 보관키로

친구들의 놀림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인슐린 주사를 맞는 '소아당뇨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학교에 보건실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독립된 투약공간을 마련하고,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을 보관하기로 했다. 또 공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고, 연속혈당측정기 등 소모성 재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14일 '세계 당뇨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2006년 14.9명에서 2016년 18.3명으로 늘었고,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

일수록 많다.

소아당뇨는 선천적으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들은 하루 4~7번의 혈당을 측정하고 일과 중에 인슐린을 투약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아당뇨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조사 등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은 재학현황을 제출받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 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도시 조성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시민을 품고,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라는 비전 아래 5대 핵심 분야로 구성된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이하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권도시 기본계획은 앞서 1기에서 인권전담부서 신설, 인권헌장 선포, 인권윤리센터 도입 등 제도 도입 위주로 시행됐다.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운영되는 2기는 1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원하는 인권정책, 사회적 약자 의견 수렴 등을 더해 구체적인 정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광주시는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등 인권거버넌스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분야는

‘자신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도시’라는 비전으로 핵심과제는 일상생활 활차별요소 없애기 등 7개다.

또 ‘당당하게 누리는 광주’라는 비전을 내건 노인분야는 노인인권교육 확대 등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 밖에 여성분야 핵심과제는 비전을 ‘성차별 없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인권도시’로 정하고 지역여성 대표성 제고 등 11개이며, 이주민분야는 비전을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으로 정하고 선주민의 다문화 민감성 교육 등 8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정했다.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주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추진되는 어린이·청소년분야의 핵심과제는 참여 시스템 정비 등 8개다.

또 인권도시분야는 인권제도와 인권행정 강화, 인권공동체 문화 형성, 인권행정 협치체계 구축, 인권도시 광주 위상강화를 위한 인권영향평가제 확대 실시 등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도, 해외 쇼핑몰 전자상거래 창업 인력 양성

목포대·전남우정청 ‘글로벌 셀러’ 일자리 창출 협약

전남도가 해외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전자상거래 창업을 꿈꾸는 ‘글로벌 셀러’ 양성에 나섰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목포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목포대, 전남지방우정청과 ‘글로벌 셀러’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했다.

글로벌 셀러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등 해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해 물건을 판매하는 소자본 개인 창업의 일종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이커머스 아이디어 창업희망자 모집, 전자상거래 활동과 창업·우수상품 발굴 지원 등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역 특화 생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을 장려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대는 일반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셀러 양성교육을 하며, 전남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법 전수 등 판매활동과 해외 배송을 돕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 기관은 국비

신청 등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글로벌 셀러는 개인이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이란 난제를 푸는 방법으로 권장할 만하다”며 “기관들이 각자 역할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비금도·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매 14억(임시불 대폭조정), 무인도
010-3605-5000 교환가능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송정리 부동산 매물

-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 투자가치의 3개소
- ▶ 11억, 12억, 19억
- ▶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 대형부지 (만오천평)
-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

기독교대안학교 입학설명회

미국연수

2018년 1월 21일~2월 10일
함께 설명

일시 : 2017년 11월 25일(토) 11:30
문의 : (061)381-0000

TALK **광주국제기독교스쿨**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